

# 화순군 2.1km '꽃강길' 꽃물결로 상춘객 '유혹'

'2026 화순 봄꽃 축제' 인파 북적  
첫 주말 10만명 방문...전시 연장  
5대 테마 정원·유럽식 풍경 눈길  
음악분수 연계 야간 경관 '백미'



화순군에서 개최한 '2026 화순 봄꽃 축제'에서 탐방객들이 다채로운 꽃을 구경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봄꽃야행'을 주제로 개최한 '2026 화순 봄꽃 축제'가 구름 인파를 불러모으며 지역 대표 축제의 명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더욱이 화순천 꽃강길을 따라 펼쳐진 화려한 꽃물결은 야간 경관 조명과 어우러져 상춘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밤의 낭만을 선사하고 있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화순읍 꽃강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벽라교에서 삼천교에 이르는 2.1km 구간, 총 6ha 규모의 꽃강길에는 유채꽃을 필두로 금어초, 네모필라 등 다채로운 봄꽃이 만개해 거대한 테마 정원을 이루고 있다.

특히 개막 후 첫 주말에만 인근 광주 등에서 10만여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군은 이 같은 폭발적인 호응과 꽃의 생육 상태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전시 기간을 늘려 오는 5월10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간을 5개 구역으로 특색 있게 꾸민 점이 특징으로, 유럽식 정원을 모티브로 한 '플로라가든'은

공전 게이트와 열기구 조형물이 배치돼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풍긴다.

금어초로 가득 채워진 입체적인 정원은 방문객들의 주요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인기가 높은 '어린이정원'은 화순천의 마스코트인 수달을 모티브로 한 토피어리와 동화마을 시설이 조성돼 동심을 자극한다.

또한 네모필라와 델피늄이 어우러진 '봄꽃정원'의 타사의 정원과 꽃터널은 걷는 재미를 더하며 힐링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축제의 백미는 단연 야간 경관으로, '야행'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꽃강길 전 구간에 설치된 화려한 조명은 음악분수, 개미산 전망대와 연계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군은 방문객들이 밤낮으로 축제를 즐기며 머물 수 있도록 체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최은순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방문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전시 기간을 연장한 만큼, 마지막까지 꽃 생육 관리와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남은 기간 더 많은 분이 화순의 아름다운 봄 정취와 야경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곡성군, 명품 블루베리 태국 첫 수출 성과

동남아 시장 공략 교두보 마련

당도·품질 바탕 판촉 활동 강화

곡성군이 지역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명품 블루베리를 태국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며 동남아시아 수출 시장 진출의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농협 관계자와 지역 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곡성 블루베리 첫 수출 상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첫 수출길에 오른 물량은 총 0.1t(1kg 단위 100박스) 규모로, 곡성 블루베리 특유의 높은 당도와 단단한 과육 등 압도적인 품질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태국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하는 글로벌 진출의 포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해당 블루베리는 정밀 선별 및 포장 과정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태



국 현지로 직송된다. 곡성 블루베리는 일교차가 큰 청정 자연환경과 체계적인 재배 기술이 더해져 국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에 발맞춰 군은 수출 품목 확대 전략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

이번 태국 진출은 곡성 블루베리의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해외 시장에 각인시키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군은 앞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지 판촉 활동을 대폭 강화해 태국을 넘어 동남아 전역으로 수출 영토를 확장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첫 수출을 발판 삼아 해외 시장에서 곡성 농산물의 인지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수출 물량 확대를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장흥 정남진도서관 '문학상주작가' 선정

장흥군 정남진도서관이 전문 작가가 지역에 상주하며 주민들의 문학 활동을 돕는 일상 속 문학 공동체 조성에 나선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남진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작가가 지역 문학 시설에 머물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상주 작가로는 양인자 아동문학가가 선정됐으며, 양 작가는 동화 '꿈 좀 때지 뭐?'로 정채봉 문학상을 수상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섬세하고 공감력 높은 작품들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남진도서관 관계자는 "문학이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문화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남진도서관 관계자는 "문학이 주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문화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영록 기자

## 화순군, 유관기관 합동 검역병해충 차단 총력

화상병·뽕나방 약제 전폭 지원

화순군이 과수화상병과 토마토뽕나방 등 치명적인 검역병해충의 지역 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정밀 점검에 나섰다.

26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과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사과·배 및 시설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약제 방제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사진>

이번 점검에서는 과수화상병과 토마토뽕나방 발생 대응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농가의 예로사항 청취 및 작물 생육 상태에 따른 맞춤형 현장 기술 지도를 병행해 호응을 얻었다.

군은 선제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전폭적인 약제 지원을 추진 중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17농가(5.1ha)를 대상으로 총 220만원을 투입해 등록 약제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토마토뽕나방 방제를 위해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121 농가(106.9ha)에 총 6천316만8천원을 투입해 전용 약제 교환권을 지원하며 촘촘한 방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최은순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검역병해충은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를 막는 핵심"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철저한 예방과 적기 방제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 담양군,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등 접수...최대 60만원

담양군이 장기화된 고유가로 가중된 군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가구당 최대 60만원의 긴급 피해지원금 지급에 본격 나선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인구감소지역 우대 기준을 적용해 기초수급자 가구에는 60만원, 차상위·한부모 및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각 2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상별로 분산 접수하며, 1차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기초수

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된다.

2차는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1차 미신청자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이어진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오는 8월31일까지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미심 경제교통과장은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보성군, 다향대축제 행사장 '친환경 숲길' 새단장

맨발길·꽃길터널 등 편의 제공

보성군이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 개막을 앞두고 방문객들의 보행 편의와 안전을 위해 행사장 주변을 친환경 숲길로 전면 탈바꿈한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축제에 대비해 북채 주차장과 한국차 문화공원 일원에 생활환경숲 및 복합경관숲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사진>

우선 뜨거운 햇볕에 노출됐던 북채 주차장 외곽에는 곱빛나무와 연상홍 등 개화 수종을 집중 식재해 그늘이 확보된 보행로를 구축했다.

이 구간은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인 '숲속 맨발길'로 계속 운영된다.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는 품평관 인근 계곡 구간에 목교 2개소를 설치하고 사계장미와 황금실화백 등을 심어 다채로운 복합경관숲을 조성한다.



북채에서 잔디광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꽃길터널숲과 포토존을 마련했으며, 관내 위험 수목을 이식 및 재활용해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였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숲길 조성은 관광객의 동선 편의를 극대화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다지는 핵심 마중물"이라며 "축제 개막 전까지 공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 고흥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1억 '돌파' 쾌거

고흥군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야심 차게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식 개장한 고흥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신선 농산물 맞춤형 운영 전략에 힘입어 단기간에 누적 매출액 1억 원을 달성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호실적은 '당일 수확, 당일 판매'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를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제철 쌈채소와 뽕나방 할인 등 시기별

맞춤형 프로모션이 매출 상승을 견인했으며, 개장 초기 88개였던 출하 품목도 현재 채소와 과일, 수산물, 가공식품 등 105개로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 농과 고흥농에게 안정적인 고정 수익원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지역 상생 모델로 확고히 정착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에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철저한 품질 관리와 출하 품목 다양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상생 공간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혁 기자